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0. 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당신의 현존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포한 세상에 살면서 모질어진 우리 마음을 도려내시고, 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타협과 적응을 능력으로 여기며 불의와 거짓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쉽고 평탄한 길만 걸었습니다.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희망을 잃은 농민들의 절규가 이 메마른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는지요?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이 민족의 가슴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50. 빌립보서 4장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안 훈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6:22-24 인도자

II. 마4:1-11 이호원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충만한 기쁨 장영숙 전도사

II. 예수의 길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서두름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큰 생명의 품에 안길 때까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나날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삶의 순간순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에베소서 강해(26)/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곽권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안정숙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진 박재실 박효선	고속이 박경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훈동 김필순	송양진 박홍재

지극정성(至極精誠)으로 감사(感謝)하자

교회력(教會曆)에서는 한 해가 강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에서 강림절이 비롯되어 성탄절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는 11월 27일이 강림절 첫째주일이니 교회력에서 새해가 시작되기까지는 20여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20일 동안 그대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선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하여 잘못된 대목은 뉘우쳐 회개해야 되겠지요? 나는 교회력의 선달 그름이 이 세상 달력보다 한 달쯤 앞서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앞선 한달 기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 달 앞선 기간은 이 세상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야 제때제때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썸을 바쳐야 하는 것이지만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지난 한해를 돌아켜보면서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들을 서둘러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서 스스로 목록을 만들어 낱낱이 회개하고 새롭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의 11월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감사의 달입니다. (.....).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절에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이 땅에 감사하되 지극정성으로 하십시오. 지극정성이란 더할 나위 없이 극진하게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 지극정성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지극정성을 다해 바쳐야만 감동(感動)이 일게 됩니다. 감사를 받는 쪽이 감동하지 않는 감사는 결코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아, 2005년 11월 감사의 달에 나는 깊이 감동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바치는 이도 감동하고 감사를 받으시는 이도 감동하는, 감사의 감동이 일렁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삼십 수년 전 목회 초기에 어떤 잡지에서 딸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는 글을 읽었는데 여태까지 내 기억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암에 걸린 나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10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선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낙담하실 줄만 알았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고를 받고 난 아버지는 그 동안 여기저기 벌여놓았던 사업을 과감하게 그러나 아주 신중하게 차근차근 꼼꼼히 정리하여 함께 일해온 마땅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에 쫓겨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집안 식구들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아주 은근하고 따뜻한 사랑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이고 당신이 품고 아껴오던 것들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이니...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까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했을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당신의 삶을 깊이 참회하면서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당신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희망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서 죽음의 공포나 불안 같은 것은 그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먼, 한 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비법을 터득한 성인(聖人)처럼 우러러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나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임을 보고 감동하기를 마지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권위 있는 암전문의의 선고처럼 10개월 시한부 인생만을 살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열 배도 넘는 십 년을 더 살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박순녀라는 소설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흐릿한 ‘소설가 박순녀(朴順女)!’ 그러나 그 이는 이 글을 기억하는 복산에 의하여 가장 위대한 소설가가 됩니다. 그 이 아버지 이야기인지, 다른 이의 아버지 이야기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극정성으로 남은 인생을 산 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복산 최완택 목사님이 발행하는 <민들레 교회 이야기> 2005년 11월 5일자에서 옮겨왔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나 청원 내용에 있어서 절제 있고 조용하며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안전(眼前)에 있음을 생각하고 따라서 몸 자세와 소리 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하며, 절제 있고 조심성 있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남이 보지 않는 조용한 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느님께서 어느 곳이나 계시므로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이를 보시며 가장 숨겨진 것에까지 당신의 충만한 은총과 함께 스며들어간다는 우리의 믿음과 일치됩니다. 사실 성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신인 줄 아느냐? 사람이 제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것이 있단 말이나?*(렘 23:23-24) 또 *하느님의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잠15:3). 우리가 형제들과 일치되어 함께 모이고 하느님의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때 조심성 있고 절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잘 맞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듯 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요란한 소리로 바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들을 보시는 그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이 점을 확인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마9:4) 또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계2:23a).

—치쁘리아누스(3세기 카르타고의 주교), <주의 기도문>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박창운 허정윤 박규석 박경선 김근중 정옥영 박애순
박영숙 윤미경 이선림 김정길 최숙화 안정숙 박정숙 윤수진 이은옥
양재성 임미심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표명화 김미순 이갑재 조병주 김정섭 박상규 배부례
이호원

감사헌금:

유영남 조병주 임종우 김윤정 백혜성 김근중 정옥영 조관행 홍선희
박애순 백승민 박병구 노용래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송동준 김진경 김서영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춘 려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강 순 배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이 영 옥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왕국주일** : 오늘은 긴 오순절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27)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바자회** : 여선교회의 자선바자회가 오늘 점심시간에 열립니다. 수익금은 귀한 선교사역에 사용합니다.
4. **동호회** :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각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5. **아름다운 원로 모임** : 2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6. **세례·입교신청** : 오는 성탄절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주시요. 아동세례는 5살까지 가능합니다. 교육은 27일, 12월 4일 주일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7. **기도 요청** : 수능을 앞둔(23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8. **주소록** :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초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05년 회원의 날 행사가 11월 28일(월) 오후 7시부터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이 동참하여 격려해주시요.
10. **결혼** :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문홍일/이미혜(11월 26일 오전 11시, 연대 동문회관)
고재중/정현창(11월 26일 오전 12시, 삼성 본관 지하 회의실)
11. **신안일천** : 교회력으로는 금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헌화 : 김재홍 최희영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